

##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⑨

규원사화

(지난호에 이어)

檀君紀 단군기

神市氏, 寔爲東方人類之祖, 鴻荒之世, 開之業, 賴以成焉, 蓋檀君以前, 首出之聖人也, 古有清平山人, 李茗[高者](者, 高)麗時人, 有《震域遺紀》三卷, 引《朝代記》, 備載我國故史, 比於一然之書, 甚相逕庭, 中多仙家語, 余以爲, 我國以神設教, 從古爲俗, 沈滯於人心者, 久矣, 故, 說史者, 不可只據班, 馬之筆而踞焉, 夫漢自是漢, 我自是我也, 豈堂堂震域, 必擬漢制, 以後乃足乎! 國史遺失於屢經兵火之餘, 今僅存者, 只是道家及緇流之所記傳, 而僥倖得, 保於岩穴者也, 道家既承, 檀檢神人所創之源流, 而又得文獻之殘脈, 則其論東史者, 大有愈於緇流所記, 多出於牽強傳會, 臆爲之說者也, 余專明清平之說, 而證無疑云

신시씨는 진실로 동방 인류의 조상으로서 태고적 세상이 처음으로 개벽하던 일들이 모두 그에게 합입이 이루어 졌으니, 무릇 단군 이전에 처음으로 나타난 성

인이다. 예전에 청평산인(靑平山人) 이명(李茗)이 있었는데, 그는 고려 때의 사람으로서 《진역유기(震域遺紀)》 세 권을 저술하였다. 이는 《조대기(朝代記)》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옛 역사를 갖추어 실은 것으로서 일연(一然)의 책과 비교하면 서로 사뭇 큰 차이를 보이며 그 가운데는 선가(仙家)의 말이 많다. 내가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신인(神人)이 교화를 베푼 것이 오래 전부터 풍속이 되어 사람의 마음에 점차 스며들어 베어 있는 자가 이미 오래인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단지 반고나 사마천의 글만을 흉내내며 움푹달싹을 못하는가!

한(漢)나라는 한(漢)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어찌하여 당당한 진역(震域)을 꼭히 한나라 정도에 견준 연후에야 민족을 하는가! 한자 나라의 역사가 몇 번에 걸친 병화(兵禍) 끝에 씻은 듯이 소실되고 지금에 근근히 남아 있는 것은 단지 도가와 불가에서 기록하여 전하는 것뿐이었으나 요행히 바위굴에 간직되어 오던 것을 얻게 되었다. 도가는 이



▣ 一沙權正孝 옮김

미 단검신인(檀檢神人)이 창제한 근본 흐름을 이어받았으며 게다가 이렇게 문헌의 잔맥을 얻게 되었으니, 해동(海東)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 건강부회하고 억측이 많은 불가의 기록에 비해 훨씬 낫다.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정평의 말을 취함에 의심이 없는 것이다.

桓雄天王御世, 凡闕千歲, 是即神市氏, 蓬亭柳闕而居, 陶髮跨牛而治, 處無爲之事, 敷自然之化, 開創成業, 源流萬世, 及其耆年, 見功業已完, 民物樂生, 登太白山, 乃置天符三印於池邊石上檀木之下, 因化仙乘雲而朝天, 是以, 名其池曰朝天, 高矢氏諸人, 奉天符三印, 共推其子檀檢神人, 爲君長, 是爲壬儉, 壬儉者, 君長之意也, 新羅所謂臣師今者, 亦此類也, 以今追計, 約算四千餘歲, 正與堯堯同時, 世俗所謂堯堯并立者, 是也, 因稱檀君, 檀君者, 朴達壬儉之譯也, 蓋神市氏, 已降於檀木之下,

터였기에 한 말이다. 갑자일은 패망한 나라의 주(紂)임금에게는 불길한 날임에 틀림없으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주나라 무왕에게게 그 날이 바로 길일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조승이 대답하지 못했다. 한 쪽이 작으면 한쪽이 큰 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리 불안에 싸여 용기를 잃고 과감하지 못하며 미적미적 한다. 사실 분명한 계획과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하여 행동을 결정한다면 실패할 일이 적건만 자기 자신의 장단점과 상대방의 허실을 파악하는데 소홀하면서 운명이나 운수에 기대 보려고 한다. 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다.

하역간 탁발규가 공격하자 결국에 3일 뒤에 모용린이 퇴각하여 고수(孤水, 사하)에서 방어하였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뒤에 탁발규가 모용린과 더불어 의대(義臺, 신라시 서남쪽)에서 싸워서 그들을 대과하였고, 결국 후연의 공경(公卿)·상서·장리(將吏)·사졸(士卒) 가운데 북위에 항복한 사람이 2만여 명이었다. 또 연의 새수(騫婁)·도서(圖書)·부고(府庫)의 진귀한 보물을 1만 점을 획득하여 여러 신하들과 장수와 군사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북위의 탁발규가 크게 승리하였고, 북조를 통일할 기초를 세우게 된 것이다.

사실 불길한 날이란 없다. 스스로 불길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해가 바뀔 적에는 일년의 운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스스로 조심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불길한 일이 있을 까닭이 없다. 불길한 날을 길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아버지의 형님은 백부와 중부가 있고, 아버지의 아우는 숙부인데 손수로는 삼촌이 된다. 백, 숙부의 아들 사이는 종형제간인데 보통 사촌형제라고 한다.

또 조부의 형제는 종조부라 하며 그의 아들은 종숙 또는 당숙이요 손수로는 오촌이다. 종숙의 아들은 자기하고는 재종형제, 즉 육촌 형제간이 된다.

〈권혁제〉

## 불길한 날을 길일로 바꾼 탁발규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사람들은 점치기를 좋아한다. 특히 큰 일을 앞두고는 장차 벌어질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을 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은(殷)나라 시대에는 국가의 대사를 결정할 때에 점치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정인(貞人)이라고 하여 높은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전통 때문인지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큰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점을 쳐 보는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눈에 많이 띈다.

전진(前秦)의 부견이 비수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 북조(北朝)는 여러 나라로 나뉘었다. 그 가운데 모용씨가 세운 후연(後燕)과 요씨(姚氏)가 세운 후진(後秦)이 강하였고, 남연(南燕), 서진(西秦), 후량(後凉), 남량(南凉), 북량(北凉)과 북위(北魏)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여러 나라를 다시 재통일한 나라가 바로 탁발(拓拔)씨가 세운 북위(北魏)인데 그 왕 탁발규에 관한 이야기이다.

북위와 후연 사이에는 중산(中山)이 있었다. 중산은 여러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때로는 독립 정권을 만들어 중산국이 되기도 하고 혹은 힘이 없으면 이웃 나라에 항복하기도 한 지역이었다. 삼국 시대의 유비가 바로 이 중산정왕의 후예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바로 그 중산국이다. 이 중산에 동진 안제 융안 원년(397년)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악해지자 후연의 황제인 모용린(慕容麟)이 2만여 명

을 인솔하고 나가서 중산의 신시(新市, 하북성 신라시)를 점거하였다. 여러 나라가 각축하고 있던 시대에 재빠르게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중산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던 북위의 입장에서 후연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북위의 황제 탁발규가 군사를 내어 그들을 공격하였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그림날이면서 간지(干支)로는 갑자일이었다. 이러한 날은 보통 불길한 날로 생각하여 군사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이 임무를 담당하는 태사령(太史令) 조승(曹崇)이 말하였다. “상서롭지 못합니다. 옛날 은(殷) 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紂)가 갑자일로 인하여 망하였고, 그래서 이날을 질일(疾日)이라고 말하였는데, 전쟁에 참가하는 군사들이 이것을 꺼리고 있습니다.”질일이란 나쁜 날 즉 불길한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북위의 탁발규가 말하였다. “주(紂)가 갑자일에 멸망했지만, 은나라를 쳐부순 주나라 무왕은 갑자일에 일어나지 않았소?”어떤 사람에게 불길한 날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길일이 될 것은 분명한

## 기본적 예절상식을 익히자

우리 조상들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효(孝)는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는 유교적 윤리관을 숭상하여 2천4백년 전 중국의 동이열전(東夷列傳)에 동방예지의국(東方禮義之國)이라고 전해져 왔으며, 우리의 수제들은 전 세계에 고루 진출하여 우수민족임을 인정받고 있는 것도 우수혈통(優秀血統)과 유교문화권(儒敎文化圈)에서 자라며 계승받은 전통예절문화(傳統禮敎文化)의 슬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종래의 각종 예절 문헌 중에서 후세인에게 이어주어야 할 부분들을 발췌하여 알기 쉽게 원문을 현토(顯註)하고 한글 관례(冠禮)나, 계례(筮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등을 비롯하여 각종 예절을 차례로 연재하고자 한다.

친족과 친척

1. 친족(親族)

친족이라 함은 손수(寸數)가 가까운 차례불이를 말하는 것이다. 같은 조상에서 갈려 나온 혈족(血族)을 직계혈족(直系血族)과 방계혈족(傍系血族)의 둘로 나

2. 백숙부 재종 등

형제와 종형간(從行間)은 2,4,6,8,10촌인데 속항(叔行)은 1촌씩 가산(加算)하므로 3,5,7,9촌이 된다.

而桓檢神人, 復踐 於檀樹下, 故因以檀爲國名, 則檀君者, 檀國之君也; 而東語謂檀曰朴達, 或曰白達, 謂君曰壬儉, 當時無漢字, 故只稱白達壬儉, 而後世之述史者, 譯以檀君, 復傳至後世, 則只記檀君字, 而不知檀君之爲白達壬儉之譯, 此漢字之功罪相半也, 今若以彭書并用, 則必無是弊, 而草野愚夫, 亦可易曉, 文化之啓發, 更可速矣, 此未遠長也

환웅천왕이 세상을 거느린지 무릇 길 천년이니, 그가 바로 신시씨이다. 속대 정자와 버드나무 궁궐에 거처하며 정성으로 사람을 교화하고, 앉아서 쉴 틈도 없이 다스리며 행함이 없는 듯이 일을 처리하여 자연스러운 교화를 널리 퍼고는 나라를 열며 처음으로 위업을 이루니 그 근본이 만세로 이어졌다. 그 말년에 이르러 공들이 위업이 이미 완성되고 백성과 사물들이 즐거이 사는 것을 보고는 태백산에 올라 하늘의 부절인 세 가지의 인(印)을 못 가의 돌 위 박달나무 아래에 놓고 신선으로 변화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랐다. 때문에 그 뜻을 이름하여 ‘조천지(朝天池)’라 하는 것이다.

고시씨와 모든 사람은 하늘의 부절인 세 가지의 인을 받들고 그의 아들인 환검신인(桓檢神人)을 다함께 추대하여 군장으로 삼으니 이로서 임금이 되었다. ‘임금’이라 함은 군장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라에서 이른바 ‘나사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 종류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삼하면 대략 4천여 년이 되니 바로 당요(唐堯)와 같은 때로서, 세속에서 말하듯이 [요(堯)와 아울러 함께 일 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단군(檀君)’이라고 이름하는데, ‘단군’이란 ‘백달임금’의 번역이다. 대저 신시씨가 이미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왔고 환검신인이 박달나무 아래에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기에 ‘단(檀)’으로 나라이름을 삼게 된 것이니, ‘단군’이라 함은 박달나라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말에 ‘단(檀)’을 ‘백달’ 혹은 ‘백달’이라고 하며 ‘군(君)’을 ‘임금’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한자가 없었던 까닭에 단지 ‘백달임금’이라고 하였던 것을 뒤에 역사를 서술하던 자가 번역하여 ‘檀君(백달임금)’이라 하였고, 다시 후세에 전해지며 단지 ‘檀君’이라는 글자만 기록하게 되었기에 ‘檀君’이 ‘백달임금’의 번역인 줄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한자의 공과 죄가 반반이라, 지금에 만약 언문과 함께 쓴다면 이러한 폐단은 반드시 없을 것이니, 곧 들녘의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깨우쳐 문화의 계발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서술하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Wer lieven kann, ist glücklich.)’라는 말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가 『마르틴의 일기(1918년 집필)』에서 남긴 말인데 내가 무던히 좋아하는 구절이다. 요사이는 결혼주례를 맡지 않고 있지만 한때는 거의 주3회 정도로 주례를 맡았었다. 10여년 전부터는 이 구절을 주례사에 꼭 포함시켰다.

나는 일제 강점시절에 경성제대 에과에서 공부했는데 당시에는 의학(이과)을 법학(문과)을 전공하게 되는 학생드레게는 독일어가 제1외국어였으며, 주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다. 자연히 독일출신 문호들의 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았으며 헤세의 작품 중에서는 『수레바퀴 밑에서(Unterm Rad, 1906)』가 제일 인기가 있었다. 당시 독일 신학교의 규칙은 대단히 엄격하였다. 구약성서는 헤브라이어로, 신약성서는 그리스어로 읽어야 했다. 『수레바퀴 밑에서』는 헤세가 신학교를 탈주한 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헤세는 ‘데미안(Demian, 1919)’, 『크눌프(Knulp, 1915)』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가의 특징 중 하나는 단편 집·시집·우화집·여행기·평론·에세이·서환집 등 다수의 간행물을 발표한 것이다. 헤세는 4세부터 9세까지 스위스의 바젤에서 지낸 것 외에는 대부분 독일 남부의 칼프에서 지냈다. 1890년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고 다음해에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천성적인 자연주의자로서, 개성에 눈뜨면서 미래의 시인을 꿈꾼 헤세는, 신학교의 속박된 기숙사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탈주했으며 한때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노이로제에서 회복된 후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나 1년도 못되어 퇴학하고 서점의 견습 직원이 되었다. 그 후 한동안은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병든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칼프의 시계공장에서 3년간 일하면서 문학수업을 시작하였다. 1895년 가을 튀빙겐의 서점에서 다시 견습 점원이 되는 한편, 낭만주의 문학에 심취하여 처녀 시집을 출간했고 산문집을 발표하였다.

그는 1904년에 9세 연상의 피아니스트와 결혼하였고 스위스로 이주하여 시작(詩作)에 전념하였다. 1923년에는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후 그가 겪은 생애 중에는 인도여행을 통해 동양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일,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문단과 출판계로부터 애국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비난과 공격을 당한 일,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정신병, 자식의 신병 등 가정적 위기를 맞아 이를 탈출하려고 하여 작품(作風)이 달라진 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인간성을 말살시키려는 나치스의 광신적인 폭정에 저항한 일 등 수많은 파란을 겪다가 1963년에 세상을 떠났다. 헤세의 연애론은 유명하다. 소년기의 철없는 사랑, 장년기의 애욕(愛慾)의 사랑, 만년기인 만인을 위한 사랑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그의 작품은 그의 연애편력을 토대로 한 것이며 결국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서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가 실려 있는 『마르틴의 일기』 원문을 접할 일은 없다. 하지만 10여년 전에 플라미헤르(Volker Michels)라는 편집인이 ‘헤세의 사랑’을 주제로 연구하고 헤세의 여러 작품과 시, 평론, 수상 등에 실린 것들을 정리하여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을 일 본 번역가가 번역하여 출판한 책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었다.

헤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삶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인가”가 심각하게 되었다. 사랑을 받는

귀는 벅을 어진 사람을 골라야 좋고, 많은 믿음성이 있어야 좋으며, 정치는 다스려져야 좋고, 일의 처리는 능숙해야 좋으며, 행동하는 것은 때에 알맞아야 좋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다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됨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자는 다투지 않는 것이 최상의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지 않는 최상의 상징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물은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래서, 도는 형체, 색, 맛, 냄새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우주의 삼라만상이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을 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무궁한 이치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

###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 총재단회비  
△권세원(부총재) 100만원
- ▣ 총무위원회비  
△권택원(서울) 20만원

**합계 120만원**



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한다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나는 체했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를 값진 것으로 만들고, 기쁨에 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감정, 감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된다.

내가 이 지상의 어디에서야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들은 언제나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돈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권력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돈과 권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마음이 비참한 사람이 많이 보았다. 아름다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단히 아름다운 남녀 중에도 마음이 비참한 경우가 꽤 보았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행복은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들은 마음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세상의 불행은 사랑하는 마음의 능력이 손상되는 데서 생긴다. 예수도 부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 속 깊이 있는 것 즉,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한편, 헤세는 20세기의 문명비판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소설 『Das Glasperlenspiel』(유리알 유희, 1943)라는 작품으로 194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떨다고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 이 심오한 뜻을 음미하면서, 물을 마실 때나, 비를 맞을 때나, 목욕을 할 때에, 물에 대한 신비함과 고마움과 순수 무결한 물의 정신을 몸소 체득하고, 삶의 영양으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한 때가 많다.

그러나, 나와 같은 속인은 험기와 악과 시기와 분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생활하는 것도, 이 「도덕경」에서 배운 교훈이다.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기를 권하는데, 도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시대적 인간이 됐으면 더욱 바랄 것이 없었다.

## 노자의 도덕경

▣ 權寧翼 (본원부총재)

미해 가며 생활한다.

이를 해석하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모든 생물에 이로움을 주면서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살마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즐겨 있다.

그런 까닭에 물은 도(道)에 거의 가까운 것이다. 사람들은 사는 곳으로 땅을 선택하며, 마음은 생각이 깊어야 좋고, 사

